

부아쉬의 산맥체계에 의한 바다분류가 동해표기에 주는 시사점*

정인철**

Buache's Sea Naming by Mountain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Naming of East Sea*

In-Chul Jung**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아쉬의 산맥체계에 의한 바다분류가 동해표기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관련 고문헌과 고지도를 조사하여 부아쉬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부아쉬가 동해 명칭으로 한국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첫째, 부아쉬는 프랑스 최초로 지리학자의 자격으로 왕실지리학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일반시스템 이론을 지리학에 도입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세계의 자연질서를 산맥과 바다의 계층질서를 통해 찾는 것이었다. 둘째, 부아쉬는 지도를 20세기 후반 지도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였던 지리적 시각화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셋째, 부아쉬는 산맥체계를 바탕으로 바다를 세 개의 대양으로 분류했으며 각 대양은 다시 해양분지로 분류하였다. 동해는 태평양의 특별분지에 속한다. 넷째, 부아쉬가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것은 두들리의 1647년 아시아 지도와 기욤 드릴의 1720년 아시아 지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째, 부아쉬의 한국해 명칭 채택이 갖는 의미를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동해, 부아쉬, 산맥체계, 해양분지, 서양고지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mountain hierarchy system of Philippe Buache in order to find some implication for the naming of "East Sea". For this, we surveyed the old maps and old manuscripts possessed by th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Firstly, Philippe Buache became the first Royal geographer as a member of the Academie des Sciences. He introduced general system theory in geography to find the worldly order by the hierarchies of the mountains and oceans. Secondly, Buache's used maps as a mean of geovisualization for a new discovery. Thirdly, the Earth is marked by chains of mountains which join together from one end of the continents to the other. These mountain ranges divide the three ocean basins. Each ocean basin is divided into maritime basins which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by marine mountain ranges. East Sea is a particular maritime basin of the Pacific Ocean. Fourth, Buache always labelled East sea as 'Mer de Corée'. A possible precursor of this labelling was Robert Dudley's Asia map of 1647 and Guillaume Delisle's Asia map of 1720. Fifth, the meaning of Buache's toponomic choice in relation to the naming of East Sea is discussed.

Key Words : East Sea, Philippe Buache, Mountain System, Maritime Basin, Old western maps

I. 서론

동해 명칭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2,000년 이상

동해로 불려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해로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만(이상태, 2004), 일본은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해외홍보원과 동해연구회가 추가 되어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27-B00747).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icjung@pusan.ac.kr)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도서관, 프랑스 국립 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 미국 남가주대학교 도서관 등의 서양 고지도를 조사하고 동해 지명의 표기 빈도를 통계처리하여 동해 명칭이 일본해 보다 월등하게 서양고지도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홍보하였지만(The Society for East Sea, 2002), 일본은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서양고지도 조사를 통해 밝히고, 세계 각국에 홍보자료를 발송하여 우리나라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해 표기 관련 연구는 해양 지명 표준화 및 한국 고지도와 관련해서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양보경, 2004; 주성재, 2007; Choo, 2009), 서양 고지도 분야에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해 지명과 관련해서 서양고지도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로는 서정철이 최초라 할 수 있다. 그는 프랑스 유학시절 서양고지도에 동해 명칭이 동양해 또는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동해로 표기된 지도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한국에 소개하였다(서정철, 1991; 서정철·김인환, 2010). 서정철은 이후 자신의 전공인 언어학적 관점에서 동해 명칭을 고찰하였다(서정철, 1997). 이후 김신(1997)은 동해 명칭 표기 서양고지도를 보다 체계화하여 정리하였으나, 여전히 조사 대상 지도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오일환(2002)은 해외홍보원의 영국, 프랑스 등의 도서관 소장 고지도와 미국 남가주대학교의 한국문화유산도서관 사이트,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소장 서양고지도를 조사하여 18세기에 나타난 동해의 표기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해 관련 표기는 18세기에 등장하여 175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나 19세기에는 일본해에 밀려 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비슷한 연구결과는 미국남가주 대학교와 프랑스국립도서관, 및 개인소장 지도자료를 비교한 이상태(2004)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18세기에는 한국해로 표기된 지명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동해연구회에서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중심으로 서양고지도와 관련한 연구들이 계속되었다. 이 가운데 이돈수(2006)는 서양고지도에 동해(East Sea)보다는 한국해(Sea of Korea)로 표기된 지도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동해 명칭 대신 한국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책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인철(2010)은 동해 표기의 빈도수에 대한 해

외홍보원의 주장과 일본 외무성의 주장간의 괴리에 대해 의문을 품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명칭의 시대에 따른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17세기에는 중국해, 18세기에는 한국해, 19세기에는 일본해 표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8세기의 프랑스 지도학자들이 동해를 한국해로 부르게 된 이유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근무했던 니호프(Niehoff)의 1672년 네덜란드 동인도대사가 자카르타에서 북경까지의 여행 일정을 기록한 지도의 한국해(mare coreum) 표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제작연대별 빈도수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도의 저자, 제작 연대, 동해 명칭에 관한 서지 정보에 국한하여 통시적으로 고찰했다는 문제점들을 가진다. 즉 개별 지도의 중요성이나 개별 지도가 제작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찰하지 않았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이론적인 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때론 일본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서양 지리학자들이 바다를 어떻게 구분해 왔으며, 바다 명칭을 어떻게 부여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이, 지도상에 표기된 명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표해 왔다.¹⁾ 대표적인 사례가 동방해(Oriental Ocean) 명칭을 동해(East Sea)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연구를 비판하고 있다. 동방해를 동해로 간주하려면 동방해와 동해를 이어주는 매개, 예를 들어 소동방해(Minor Oriental Ocean) 개념과 시대에 따른 동방해 개념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러한 학문적인 부분에 소홀하였다. 이는 동해에 대한 명칭 연구를 학문적 차원이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제작한 18세기 지도 중 다수는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였다. 물론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도 존재하지만 당시의 지도제작을 주도했던 프랑스와 영국의 왕실지리학자들은 주로 한국해로 표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사실을 동해 명칭의 정당화 근거로 강조하고 있지만, 왜 이들이 일본해 대신 한국해 명칭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서양 고지도에서의 일본해 호칭에 대한 성립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를 이룬 일본에 비해서 미약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심정보, 2007).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미진했던 이러

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 지도제작자들의 지도에 표기된 동해 명칭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8세기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지도학자 중 가장 뛰어난 학자로는 프랑스의 왕실지리학자인 부아쉬(Philippe Buache, 1700-1773)를 들 수 있다. 그는 세계의 산맥 및 해저 지형을 고려하여 바다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는 당대에 이용 가능한 모든 과학적 탐사 자료를 근거하여 세계의 산맥체계에 바다 구분을 체계화하였다. 부아쉬는 세계지리학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남겼기 때문에, 그가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동해 호칭의 표기 전략 수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아쉬가 한국해 명칭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그의 지리학 및 지도학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부아쉬가 지리학자 및 지도학자로 남긴 업적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부아쉬의 지도 및 부아쉬가 작성한 논문을 조사하여, 그가 지도상에 어떻게 바다 명칭을 표기했는지를 고찰하였다.

셋째, 서양고지도에서 지도상에 바다를 표기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바다표기 방식의 흐름에서 부아쉬가 미친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넷째, 부아쉬의 한국해 표기가 실제 오늘날의 동해 명칭 표기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를 논의하였다.

II. 부아쉬의 지리학과 지도학

지도의 권위는 지도 제작자의 권위에 비례한다. 왕실 지리학자가 제작한 지도와 일류지리학자의 지도를 흉내 내어 제작하는 아류 지도제작자의 지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우선 부아쉬의 지리학자로서의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아쉬는 건축학을 배경 학문으로 하는 이론지리학자이다. 그는 1721년에 프랑스 건축아카데미의 대상을 받을 정도의 우수한 건축가였다. 그는 1721년 루이 15세가 설립한 해군지도제작소(Depot des Plans, Cartes et Journaux de la Marine)에 들어가서 지리학자 및 수로학자로 일하게 된다. 이후 그는 프랑스 왕실지리학자인 기욤 드릴(Guillaume Delisle)의 사위가 되었으며, 1730년

에는 프랑스 과학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의 회원이 된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프랑스 과학아카데미가 그를 지리학자의 자격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부아쉬 이전에도 카시니(Jean-Dominique Cassini)나 기욤 드릴(Guillaume Delisle)과 같은 지도학자들이 과학아카데미의 회원으로 활약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천문학자의 자격으로 회원이 되었다. 따라서 지리학자의 자격으로 프랑스 과학아카데미 회원이 된 것은 부아쉬가 최초이다. 그리고 그는 1730년에 왕실 수석지리학자(Premier Géographe du Roi)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1751년 프랑스 군사학교(Ecole Militaire) 창설시 그는 지리학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교육과정에 지리학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1756년에는 루이 15세의 손자에게 지리학을 가르치는 왕실 교수가 되었다.

부아쉬는 지도제작자로서는 그의 장인이며 스승인 기욤 드릴의 맥을 잇지만 지리학자로서는 이전의 프랑스 지리학자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 이전의 지리학자들이 중세의 신학과 지역기술적 지리학에 치우쳤다면 그는 이론에 입각한 이론지리학자였다. 그리고 동시대의 자연과학자들의 연구 경향을 받아들여 사물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과학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전의 지리학자들과는 패러다임을 달리하였다.

부아쉬는 지구의 형태, 지구 자기, 바다의 분포 및 산맥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18세기와 19세기의 지리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Bell, 1832; Chorley and Percy, 1991). 부아쉬는 지구적 차원에서 대양과 산맥, 섬과 강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752년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에서 그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지리학 이론 논문인 「자연지리학논고(Essai de Géographie Physique)」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지구의 산맥이 지구를 지탱하는 때대의 역할을 한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산맥이론을 주창하였다. 그는 산맥의 계층체계를 세우기 위해 산맥을 지구 전체를 관통하며 대륙을 잇는 대산맥(great mountain ranges), 대산맥에서 분기한 산맥(lateral mountains), 그리고 이에서 다시 분기한 해안산맥(coastal mountain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해령을 산맥체계에 포함시켰는데, 섬이나 암초는 해령이 수면에 노출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바다의 계층질서는 이 산맥들의 계층질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대양은 대산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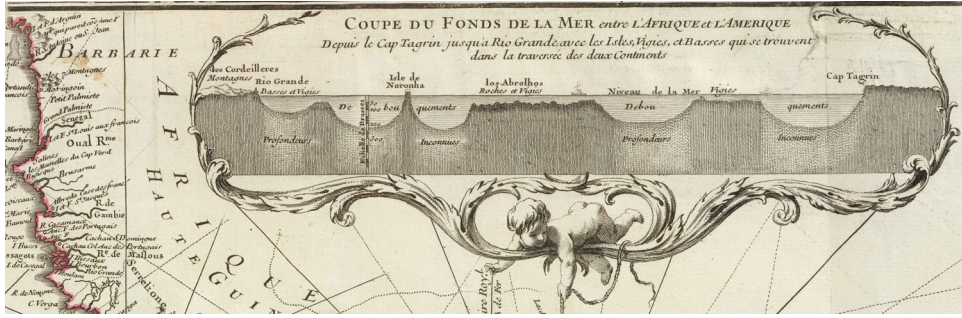


그림 1. 부아쉬의 「대서양 지도」 일부

출처 : 프랑스 국립도서관.

이 형성하는 유역분지²⁾이다. 부아쉬는 대산맥이 형성하는 가장 큰 규모의 유역분지의 수를 세 개로 간주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대양은 이 보다 작은 규모의 해양분지(maritime basin)를 갖는다. 부아쉬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이 각각 세 개의 해양분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지구는 연속되어 있는 산맥과 해저 산지에 의해 분리되는 수많은 유역분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설을 내세우면서, 유역 개념에 기초한 지역인식을 도입하였다. 그의 자연체계는 산맥과 유역분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유역분지가 자연지역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주창하였다(권용우·안영진, 2001). 그의 이론은 지리학자인 뷔싱(Anton Friedrich Büsching)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역을 지형에 의해 구분했는데, 지형에 의해 구분한 지역이 신의 섭리를 반영한다는 것이다(Bowen, 1981; Minschull, 1967). 정치적 경계를 대체하여 산맥, 해양, 강이 상호작용하여 자연 경계를 형성한다는 그의 자연 지역 이론은 후대의 지리학자인 블라쉬(Paul Vidal de la Blache)나 매킨더(Halford John Mackinder), 록스비(Percy Maude Roxby), 허버트슨(Andrew John Herbertson)에게 영향을 미쳤다(Herbertson, 1905).

셋째, 부아쉬는 대륙이동설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그는 1737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이 이전에 하나일수도 있었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근거는 그가 해저 산맥을 고려하여 세계의 산맥체계 이론을 정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열도나 암초를 산맥의 정상부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1753년 발행한 「태평양 북쪽의 발견에 대한 지리적 및 자연적 고찰(Considérations géographiques et

physiques sur les nouvelles découvertes au nord de la Grande Mer)」에 수록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세계의 모든 대륙이 지구의 한편에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Buache, 1753).

넷째, 지도를 수집한 지리정보의 표현수단을 뛰어 넘어 발견을 위한 가설표현의 수단으로 제작하였다. 예를 들어 1754년 국왕에게 제출한 「자연지리학의 지도와 도표(Cartes et Tables de la Géographie physique ou naturelle)」에 수록된 지도들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다(Buache, 1754). 예를 들어 「대서양의 일부지도(Carte de la Partie de l'Océan)」에서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바다의 해저 단면도를 삽입하였다(그림 1). 그런데 이 단면도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실측 단면도가 아니라 일부의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두 지점 사이를 잇는 단면도를 상상으로 그린 것이다. 즉 이 단면도를 바탕으로 그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해저산맥의 존재를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아쉬의 지도제작 방식은 현대의 지리적 시각화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주어진 사실만 지도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실을 기반으로 그의 이론을 지도화하여 미래의 지리적 발견을 예측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지리적 시각화와 통하는 것이다.³⁾ 그래서 그의 지도는 18세기의 지리적 시각화로 간주되기도 한다(Chen *et al.*, 2008).

이외에도 부아쉬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연결 여부, 남미 대륙의 지형에 관한 많은 지리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록 그의 연구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수긍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최초로 산맥을 시스템의 관점에서 연구했으며(Guyot, 1849)⁴⁾, 이 산맥을 체계화하는 가운데서 유역분지와 자연지역의 개념을 확립하였

다. 그의 지리학은 신이 창조한 자연의 질서(order of nature)를 찾는 것이었다. 자연의 질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산맥의 질서였다. 그러나 그의 시스템적 사고는 관측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었으며, 직관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⁵⁾

부아쉬의 시스템적 사고는 당시의 자연과학적 연구 패러다임을 도입한 것으로 지구의 크기와 구조, 움직임, 생성과 발전 등 지구의 전반적인 이론에 관한 버넷(Thomas Burnet)과 우드워드(John Woodward), 뷔퐁(George Louis Buffon) 등의 시스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을 시기였다(Buffon, 1749). 부아쉬는 지리학자로서 지구의 형태를 결정짓는 원리로서의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다(Laboulais, 2006). 부아쉬는 지리학을 자연 지리학, 역사지리학, 오늘날의 지도학에 해당하는 수학적 지리학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자연지리학의 기본은 산맥으로 지구에 대한 지리적 인식은 유역분지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 산맥을 연구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uache, 1752). 그리고 하계망은 산맥에 의해 구체화 되며, 그리고 이로부터 다시 몰랐던 산맥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⁶⁾

III. 부아쉬의 바다 표기 방식

18세기 이전 서양고지도의 바다의 명칭 표기는 크게 해양분지식 방식(maritime basin perspective)과 해양축 방식(ocean arcs perspective)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국가 명칭을 연안에 부여하는 방법도 존재했지만, 이 방식에 의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⁷⁾ 여기에서는 해양분지식 방식과 해양축 방식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해양분지식 방식은 바다를 크게 방향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다. 리베로(Diego Ribero)의 1529년 지도는 당시의 바다 구분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인 지도인데, 그는 대양을 방향에 따라 남해(oceanus meridionalis), 북해(oceanus septentrionalis), 서해(oceanus occidentalis), 동해(oceanus orientalis)로 크게 구분한다. 그리고 하위계층의 바다로는 중국해(mare sinarv), 에치오피아해(mare ethiopicum), 북해(Mare hyperboreum), 벵갈만(Sinus Gangeticus) 등을 삽입했다(Vigneris, 1962). 대체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구분은 1500

년대의 지도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536년 피네(Oronco Fine)의 「심장형지도(Recens et integra orbis descriptio)」에서는 대서양(oceanus atlanticus), 마젤란해(oceanus magelanicus), 북동 태평양(mar de sur), 인도양(oceanus indicus), 페르시아만(sinus persicus), 북극해(oceanus hyperboreus) 등의 명칭을 바다의 넓이와는 상관없이 방향에 따라 부여하였다. 오르텔리우스(Abraham Ortelius) 역시 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17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다만 지리정보의 확충에 의해 지역에 따라 약간 세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인 해양축 방식은 17세기 중반에 등장한 방법인데, 해역을 구분하지 않고 해역을 가로지르는 축을 설정하여 바다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지도를 그린 대표적인 지도학자는 니콜라 상송(Nicolas Sanson)이다. 그의 1667년 「아시아 지도(ASIA VETUS)」에서는 벵갈만 등의 작은 만을 표시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도와 달리 연안 쪽에 매우 작은 글씨로 이들 바다의 명칭을 표시하고, 동양해(OCEANUS ORIENTALIS SIVE EOUS)를 남지나해에서 현재의 동해에 이르는 큰 축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1696년 카시니(Jacques Cassini)의 「세계지도(Planispherium terrestre secundum)」에는 북해(mer du nord et ocean septentrional)와 동양해(ocean oriental) 등이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다(그림 2). 해양축 표기법은 지역 자체보다는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항로를 중심으로 한 인간활동의 공간을 표현한 것이다(Lewis, 1999). 비록 당시의 지도가 모두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상송과 카시니의 영향력이 유럽에서는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17세기와 18세기의 많은 지도제작자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제도제작자로는 자요(Alexis-Hubert Jaillot), 기욤 상송(Guillaume Sanson), 코로넬리(Vincenzo Maria Coronelli), 호만(Johan Baptist Homann), 보곤디(Didier Robert de Vaugony)와 벨랭(Jacques Nicolas Bellin) 등이 있다.

그런데 18세기 중후반에 들어와서는 이 경향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된다. 이 변화를 주도한 것이 부아쉬이다. 부아쉬는 그의 1753년 논문에서 “연속된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했는데, 이러한 사고가 분지식 방식을 채택하게 한 것이다(Buache, 1753).⁸⁾

그러면 부아쉬는 어떻게 세계의 바다를 구분하였을까?



그림 2. 자크 카시니의 1696년 「세계지도」

출처 : 프랑스 국립도서관.

표 1. 부아쉬의 바다 계층체계¹⁴⁾

| 대륙이 헤엄치는 바다 | 대분지와 특별분지 |
|--------------------|---|
| 대서양(Ocean) | 북해(Ocean sept. ou Mer du Nord) 중부 대서양(Ocean Atlantique) 남부 대서양(Ocean Meridional) 멕시코만, 북극해, 래브라도 해(Mer du Nord-Ouest), 지중해, 흑해, 발트해 |
| 태평양(Grande Mer) | 북태평양(Mer Septentrionale) 중간 태평양(Mer du Sud) 남태평양(Mer Meridional) 중국해, 캄차카해, 한국해, 북극해, 서양해(Mer de l'Ouest) ¹¹⁾ , 큰 호수(Grande Eau) ¹²⁾ , 알라스카만, 캘리포니아만 |
| 인도양(Mer des Indes) | 중국해 ¹³⁾ , 페르시아해, 홍해, 벵갈만, 코코친만, 시암만 |

그는 대륙의 모양에 기초하여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으로 일차적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 세 개의 바다를 '대륙이 헤엄치는 바다'라 불렀다. 그리고 각 대양을 해령의 위치를 기본으로 하여 세 개의 대분지(grand bassin)와 이 분지에서 비켜나 있는 특별분지(bassin particulier)로 구분했다(Buache, 1752). 그리고 하위 차수의 바다를 구분했는데, 하위 차수의 바다는 매우 넓은 범위의 바다일

수도 있으며, 좁은 만 일수도 있다. 그는 지도상에서는 넓은 바다와 좁은 바다의 명칭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대문자나 소문자를 사용하여 그 크기를 구분하였다. 표 1은 부아쉬의 바다 구분인데, 계층질서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⁹⁾

태평양에는 세 개의 큰 바다인 북태평양(Mer Septentrionale), 중남미 연안의 태평양(Mer du Sud), 남태평양(Mer Merid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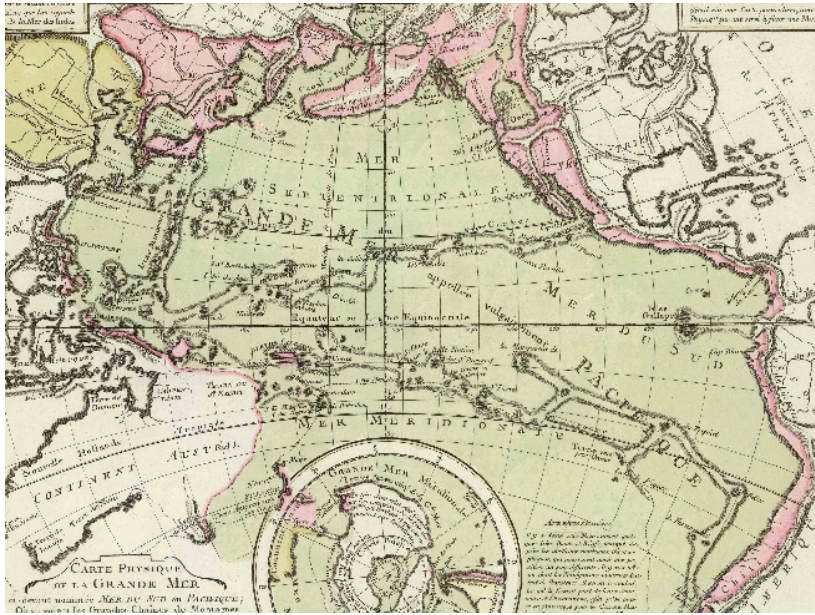


그림 3. 부아쉬의 「태평양의 자연환경지도」 일부

출처 : 프랑스 국립도서관.



그림 4. 부아쉬의 「인도양의 자연환경지도」 일부

출처 : 프랑스 국립도서관.

과 몇 개의 작은 바다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큰 바다는 아메리카와 아시아 대륙 사이의 바다를 해령에 의거해 크게 삼등분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바다는 이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다.

그림 3과 4의 지도들에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살펴보면 태백산맥이 대마도를 지나 큐슈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홋카이도의 산맥을 기준으로 동해 해역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아쉬는 이 산맥들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동해를 하나의 분지로 인식한 것이다. 부아쉬의 구분에 의하면 동해는 태평양에 속한 특별분지에 해당한다.

부아쉬는 자료가 많은 유럽의 바다와 하계망의 경우는 아시아 주변 지역보다 정교하게 구분한다. 그래서 유역분지의 계층도 보다 낮은 차수까지 언급한다.¹⁰⁾ 특히 파리 주변의 센 강의 유역분지는 아주 정교하게 구분한다. 분지식으로 지도를 그린 부아쉬의 영향은 프랑스의 망텔(Edme Mentelle), 본느(Rigoretto Bonne), 헤리슨(Herisson), 영국의 사무엘 던(Samuel Dunn) 등 후대의 많은 지도제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분지식 방식이 주된 지도상의 바다 명칭 표기 방법으로 정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Lewis, 1999).

IV. 18세기 중반의 동해 표기와 부아쉬

부아쉬가 활약했던 18세기 중반기의 동해는 세 가지 이름으로 지도에 주로 표기된다. 첫째는 동양해(Mer Orientale)이다. 그러나 18세기의 동양해는 이전의 인도

양이나 태평양과 같은 넓은 바다가 아닌 현재의 동해를 부르는 소동양해이다. 이 명칭은 오스트리아 계의 지도 제작자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둘째는 일본 북해로 네덜란드계의 지도제작자들이 주로 사용한 명칭이다. 셋째는 한국해로 당시 세계 지도화계를 주도했던 프랑스와 영국 계의 지도학자들이 사용했던 명칭이다(정인철, 2010).

부아쉬가 활약했던 18세기 중반 프랑스 지도제작은 부아쉬, 당빌(Jean-Baptist Bourguignon d'Anville), 보곤디(Gill Robert de Vaugondy), 벨랭(Jacques Bellin)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신중국아틀라스(Nouvel Atlas de la Chine)」의 저자로 유명한 당빌의 경우는 모르는 것에 대해 표기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의 지도를 제외하고는 동해에 해양지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머지 프랑스 지도제작자들은 대부분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였다. 다만 차이는 벨랭과 보곤디는 해양축 방식으로 해양지명을 표기하는 가운데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였지만, 부아쉬는 분지식 방식에 의해 한국해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부아쉬는 왜 동해에 한국해 표기를 하였을까? 부아쉬의 저서와 논문 어디에서도 한국해 명칭을 채택한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논문 중 지역적으로 동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인접한 「태평양 북쪽의 발견에 대한 지리적 및 자연적 고찰」을 참조하여 보면 동해 명칭의 채택 배경을 추정할 수 있다(Buache, 1753).

첫째, 부아쉬는 두들리(Robert Dudley)의 1647년 아시아 지도를 참조하여 이 지역의 지도를 그렸다고 기술했다.¹⁵⁾ 이 지도는 두들리의 「세계 해양 아틀라스(Dell'Arcano del mare)」제 3권에 수록된 지도이다. 이 아틀라스는 1646년과 1647년에 걸쳐 3권으로 간행되었는데, 유사한 아시아 지도가 1권과 3권에 각각 수록되어 있었다. 1646년에 간행된 1권에 수록된 아시아 지도에는 한국 연안은 한국해(MARE DI CORAI)로 표시하였지만, 대부분의 동해 해역을 일본북해로 표기하였다. 그렇지만 1647년에 간행된 3권에 수록된 아시아 지도(그림 5)에는 동해에 한국해 명칭을 크게 기록하고 일본북해 명칭은 작게 표기하여 전반적으로 동해를 한국해 위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3권에 수록된 이 지도가 부아쉬가 말한 1647년 아시아 지도이며, 이 지도의 영향을 받아 부아쉬가 한국해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부아쉬는 기욤 드릴의 1720년 지도에 영향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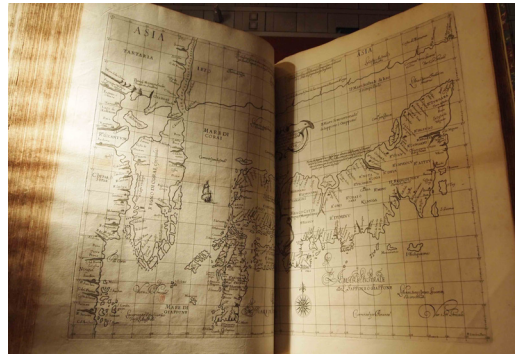


그림 5. 두들리의 1647년 「아시아 지도」
출처 : 프랑스 국립도서관.

았다고 언급했다. 기욤 드릴은 1705년 「인도와 중국지도(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부터 동해를 '동양해 또는 한국해(Mer Orientale ou Mer de Corée)'로 불렀으며, 1723년 「아시아지도(Carte d'Asie dressée pour l'Usage du Roy)」부터 한국해 단일 명칭을 사용했다. 그가 말한 1720년 지도가 기욤 드릴의 1723년 지도인 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기욤 드릴의 1720년대 한국해 표기에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¹⁶⁾ 따라서 부아쉬의 한국해 명칭은 기욤 드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기욤 드릴의 동생인 니콜라 드릴(Joseph-Nicolas Delisle)이 러시아에서 가져온 정보를 참조했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또한 베링해 탐사와 1740년대 러시아의 북동아시아 탐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니콜라 드릴은 기욤 드릴의 영향을 받아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했으므로, 니콜라 드릴의 한국해 표기 역시 부아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넷째, 1690년대에 한국해로 표기하여 지도를 제작한 예수회의 안트안느(Thomas Antoine)나 1672년에 한국해로 표기하여 지도를 제작한 니호프(Jan Niehoff)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¹⁷⁾ 그리고 1615년 최초로 한국해(mar coria)로 이 해역을 표기한 포르투갈의 고딩요 에레이다(Manuel Godinho de Heredia)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부아쉬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아쉬의 지도를 두들리의 지도나 기욤 드릴의 지도들과 비교해보면 지명이외에는 유사성이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아쉬가 결국 이들의 지도를 참조는 했지만, 지명이외에는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자료를 활용하

여 지도를 제작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서양 지도제작자로 중국과 한반도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은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의 저자인 당빌이었다. 당빌은 「황여전람도」를 참조하여 「신중국아틀라스」를 편찬하였다. 부아쉬는 이 지역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빌이 강희제와 옹정제의 황여전람도를 근거로 하여 그의 지도첩을 제작했고, 조선지도의 경우는 중국에 파견된 기술자들이 조선을 직접 탐사하지는 않았지만 조선국왕이 전해준 지도를 수정하여 만들었다고 기술하였다(Buache, 1753). 이 사실은 결국 부아쉬가 이 지역의 지도를 당빌의 지도를 참조하여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실지리학자인 부아쉬는 프랑스가 수집한 모든 지리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또 이용할 권리가 있었다. 실제로 부아쉬의 「태평양 지도」의 조선의 모습과 당빌의 「조선왕국전도」를 비교해보면 투영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즉 부아쉬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형은 당빌의 지도를 참조하였지만, 해양 명칭은 두들리와 기욤 드릴을 따랐다고 추정할 수 있다.¹⁹⁾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아쉬의 지리학과 지도학이 동해 표기에 미치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 부아쉬의 지도학을 산맥체계 및 바다표기 방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아쉬는 프랑스 최초로 지리학자의 자격으로 왕실지리학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일반시스템 이론을 지리학에 도입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세계의 자연질서를 산맥과 바다의 계층체계를 통해 찾는 것이었다.

둘째, 부아쉬는 지도를 20세기 후반 새로운 지도학의 패러다임의 하나로 부상하였던 지리적 시각화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는 이 지도를 활용하여 미지의 지역에 대한 지리학적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확인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셋째, 부아쉬는 바다를 산맥과 하천의 차수에 의해 계층체계를 수립했는데 동해는 태평양에 속하는 특별분지에 속한다.

넷째, 부아쉬의 동아시아 지도는 니콜라 드릴로부터 수집한 러시아 자료, 중국에서 수집한 황여전람도를 근거로 한 것으로 당대 최고의 정확도를 가졌다.

다섯째, 부아쉬는 당시의 지배적인 해양 명칭 표기방식인 해양축 방식에서 벗어나 분지식 방식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였다.

여섯째, 부아쉬는 당빌의 중국정보와 니콜라 드릴의 러시아 정보 등 모든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 지역의 지도를 제작했다. 그리고 한국해 명칭은 두들리와 기욤 드릴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안트안느, 그리고 니호프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해는 부아쉬가 만든 산맥체계 이론에 의한 바다로 그 명칭인 한국해는 두들리와 기욤 드릴의 명칭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동해 표기에 적용할 것인가?

부아쉬는 18세기 최고의 지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바다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명칭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해 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이 고지도상에 표기된 동해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 명칭의 정당성 주장을 위한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아쉬와 같은 당대 최고의 지리학자의 동해의 한국해 명칭 부여는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아쉬가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동해 명칭의 정당성 확보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지에 관해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부아쉬의 동해 명칭을 근거로 동해가 한국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이는 유명한 지도학자들이 제작한 지도 중에는 동해를 어떤 명칭으로 표기한 지도가 많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라야 한다는 빈도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도의 수는 후대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18세기의 지도 수는 19세기의 지도 수를 능가할 수 없다. 그런데 19세기의 유명 지도학자들의 대부분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부아쉬의 동해 표기 사실만으로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1980년대 하리(Brian Harley)는 지도는 권력의 산물이라 주장하여 엄정한 과학적 결과물이라 믿던 당시의 주류 지도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Harley, 1989). 이런 하리의 주장은 이후 몬모니에(Mark Monmonier)나 우드(Denis Wood)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비판적 지도학으로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지도가 결코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Wood and Fels, 1993; Cramp, 2010).

17세기에 서양인이 동해를 중국해로, 18세기에는 한국해, 19세기와 20세기에 일본해로 주로 표시했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과연 동해 명칭 표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서양인들이 그린 지도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에 우리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지도화(counter mapping)와 같은 식민주의적 지도와 지명에 대한 반작용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에, 서양인이 그린 지도에 의존하여 동해나 한국해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펴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아쉬의 지도가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했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지도 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가 동해 명칭을 한국해로 부여하게 된 지도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註

- 1) 예외적으로 서정철(1997)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동해 호칭을 성찰하였다.
- 2) 이것을 대양분지(Oceanic Basin)로 번역할 수 있다. 실제로 르클리(Elisee Reclus)는 1923년에 편찬한 해양관련 저서에서 대양분지로 지칭하였다.
- 3) MacEachren(1995)의 지리적 시각화 모형을 엄격히 적용하면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시각화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이라 볼 수 있으나, 컴퓨터가 없었던 당시로서는 이 정도의 상호작용도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의 지도는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실제로 이 지도를 이용하여 탐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의 지도의 탐색적인 기능은 높다고 볼 수 있다.
- 4) 부아쉬의 산맥체계는 노아의 홍수에 영향을 받은 직관의 산물일 수도 있다. 그 증거로 호셔로(Hochereau)는 부아쉬의 산맥론을 설명하면서 노아의 홍수와 연관시킨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 전 세계가 물로 차고 넘친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 물이 빠질때 가장 높은 산부터 노아가 발견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 산은 터키의 아라라산(Ararat mount) 또는 안데스의 코르딜라(Cordillera volcan

- Misti)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점차로 물이 더 빠지면 다른 산맥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유역분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Hochereau, 1761).
- 5) 지리학과 관련된 이전의 시스템으로는 우주지적인 시스템인 지구와 태양의 위치에 관한 프톨레마이오스나 브라헤(Tycho Brahe)의 시스템이 존재하였다.
 - 6) 그러나 그의 지리학과 지도제작 정신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비판자가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인데, 훔볼트는 남아메리카에 대한 그의 산맥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직접 현지 방문을 통해 밝히기도 하였다(Debarbieux, 2007).
 - 7) 예를 들어 데스리에(Pierre Desceliers)의 1550년 지도는 바다에 유럽 국가의 이름을 부여한다. 그래서 프랑스에 접한 대서양을 프랑스 해(mer de france), 스페인에 접한 대서양에 스페인 해(mer de spaigne) 명칭을 부여하였다.
 - 8) 이것은 그의 스승인 기욤 드릴의 지도 제작 방식과는 다르다. 기욤 드릴은 1705년 「인도와 중국지도(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에서 동해를 ‘동해 또는 한국해(Mer Orientale ou mer de Corée)’로 분지식으로 표현했지만 벵갈만(Golfe de Bengale), 시암만(G. de Siam), 코친친만(G. de Cochinchine) 등은 해양축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즉 동해의 경우는 해역의 특성상 분지식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다른 해역은 해양축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부아쉬는 드릴의 1705년 지도에서 표시하지 않은 중국해를 추가해 그의 지도에 표시한다. 그리고 중국해를 당시의 일반적인 방식인 중국 해안을 따라 표시하는 방법대신 현재의 황해와 그 남쪽 바다의 영역에 한정하여 분지식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 9) 실제로 그가 바다를 이렇게 이 단계로만 구분한 것은 아니며, 당시 지리정보의 확보가 미비하여 프랑스의 경우는 파리의 센 강 유역분지까지 세밀하게 구분하였지만 지구전체 차원에서는 이 단계 구분에 머물렀다.
 - 10) 실제로는 부아쉬는 계층이 낮은 산맥이나 하천을 높은 숫자로 표현했다.
 - 11) 북미 대륙 서쪽에 위치한다고 생각했던 가상의 바다
 - 12) 서양해 우측에 위치한다고 생각했던 가상의 바다
 - 13) 중국해는 인도양과 대서양 모두에 속하는 것으로 표기했다.
 - 14) 바다 명칭이 현재의 해역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번역은 부아쉬가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지 않

- 고 오늘날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역하였다.
- 15) 두들리는 1606-36년 사이에 그린 지도들을 묶어 「세계해양아틀라스」를 1646년과 1647에 걸쳐 간행하였다. 그리고 이 아틀라스는 두들리 사후 1661년에 개정판이 다시 나온다.
 - 16) 당시에는 제작 연도와 간행 연도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욤 드릴의 1723년 「아시아 지도」가 실제로는 1720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17) Pelletier(2005)는 기욤 드릴이 안트안느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한다.
 - 18) 당시 보콘디나 본느와 같은 동시대 프랑스 지도제작자들의 초선지도는 모두 당빌의 지도와 유사하다.
 - 19)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권용우·안영진, 2001, 「지리학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김신, 1997, 「잃어버린 동해를 찾아서」, 서울: 두남.
 서정철, 1991, 「서양고지도와 한국」, 서울: 대원사.
 서정철, 1997, “고지도의 동해-일본해 명칭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동해지명 표준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 발표 논문집, 37-46.
 서정철·김인환, 2010, 「지도 위의 전쟁」, 서울: 동아일보사.
 심정보, 2007, “일본에서 일본해 지명에 관한 연구 동향,” 한국지도학회지, 7(2), 15-24.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 16(1), 89-111.
 오일환, 2002, “서양고지도 속의 동해 표기 - 18세기를 중심으로-,” ‘동해’명칭에 대한 학술 세미나: ‘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와 향후 대책, 2002년 11월 21일 자료집, 59-66.
 이돈수, 2006, “‘동해’의 재검토와 ‘한국해’ 표기 제안: 지도 역사와 이론적 배경의 분석을 중심으로,” Proceeding of The 12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and East Sea, Oct. 19-21, 2006, Seoul, Korea.
 이상태, 2004,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6(1), 157-164.
 주성재, 2007, “동해 명칭복원을 위한 최근 논의의 진전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지도학회지, 7(1), 1-9.

정인철, 2010,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의 조사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0(2), 13-27.
 Bell, J., 1832, *A System of Geography, Popular and Scientific: or A Physical, Political, and Statistical Account of the World and Its Various Divisions*, Glasgow: A. Fullarton and Co.
 Bowen, M., 1981, *Empiricism and Geograph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ache, P., 1752, *Essai de géographie physique, Mémoires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 399-416.
 Buache, P., 1753, *Considérations Géographiques et Physiques sur les Nouvelles Découvertes au Nord de la Grande Mer Appelée Vulgairement la Mer du Sud Avec des Cartes Qui y sont Relatives*, Paris: Impr. de Ballard.
 Buache, P., 1754, *Cartes et Tables de la Géographie Physique ou naturelle*, Paris.
 Buache, P., 1755, *Sur une disposition de mappemonde, Histoire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 121-124.
 Buache, P., 1756, *Sur les chaînes de montagnes du globe terrestre, Mémoires de l'Académie des Sciences de l'Institut de France*, 117-124.
 Buffon, G.L., 1749, *Histoire Naturelle, Generale, Particuliere*, Paris: De L Imprimerie Royal.
 Chen, C.H., Hardle, W. and Unwin, A., 2008, *Handbook of Data Visualization*, New York: Springer.
 Choo, S.J., 2009, Endonymm geographical feature and perception: the case of the name East Sea/Sea of Japa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5), 661-674.
 Chorley, R. and Percy, R., 1991, *The History of the Study of Landforms: Historical and regional geomorphology 1890-1950*, London: Routledge.
 Cramp, J.W., 2010, *Mapping*, Chichester: Wiley-Blackwell.
 Debarbieux, B., 2007, Mountains between corporal experience and pure rationality: the contradictory theories of Philippe Buache and Alexander von Humboldt in Cosgrove, D. and Della Dora, V. eds., *High Place*, London: Taurus Libris, 87-104.
 Dunn, A.J. and Beckinsale, R.P., 1964, *The History of the Study of Landforms: Geomorphology before Davis*, London: Routledge.

- Godlewska, A., 1999, *Geography Unbound: French Geographic Science from Cassini to Humbold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yot, A., 1849, *The Earth and Man: Lectures on Comparative Physical Geography, in Its Relation to the History of Mankind*, Boston: Gould, Kendall & Lincoln.
- Harley, J.B., 1989, Deconstructing the map, *Cartographica*, 26(2), 1-20.
- Herbertson, A.J., 1905, The major natural regions: an essay in systematic geography, *The Geographical Journal*, 25(3), 300-310.
- Hochereau, C.E., 1761, Sur les chaînes de montagnes du globe terrestre, *Histoire de l'Academie Royale des Sciences avec les Memoires de Mathématique et Physique*, 117-124.
- Laboulais, I., 2006, Les système: un enjeu épistémologique de la géographie des lumières, *Revue D'histoire des Sciences*, 59(1), 97-125.
- Lewis, M., 1999, Dividing the ocean sea, *The Geographical Review*, 89(2), 188-214.
- Minshull, R., 1967, *Regional Geography*, New Brunswick: Aldine Transaction.
- MacEachren, A.M., 1995, *How Maps Works: Representation, Visualization, and Design*, New York: Guilford Press.
- Monmonier, M., 1996, *How to Lie With Map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lletier, Ph., 2005, The sea of Korea and French cartographers during the 18th century, *Proceedings, 11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October 6-8, Washington DC*, 27-52.
- Reclus, E., 1862, *La Terre: Description des Phénomènes de la vie du Globe*, Paris: Hachette.
- The Society for East Sea, 2002, *East Sea in Old Western Maps with Emphasis on the 17-18th Centuries*, The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 Vigneras, L.A., 1962, The cartographer Diogo Ribeiro, *Imago Mundi*, 16, 76-83.
- Wood, D., 1989, Commentary on J.B. Harley's 'Deconstructing the Map', *Cartographica*, 26(3 & 4), 117-119.
- Wood, D. and Fels, J., 1993, *The Power of Maps*, New York: Guilford Press.
- 교신 : 정인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이메일: icjung@pusan.ac.kr)

Correspondence : In-chul Jung, San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Email: icjung@pusan.ac.kr)

투 고 일: 2011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1년 8월 10일
투고확정일: 2011년 8월 12일